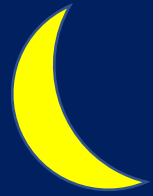


시인으로서의 출발 “하늘색 꽃”



하기와라 사쿠타로는 1886년 11월 1일,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일(朔日·사쿠지쓰)에 태어났다고 해서 사쿠타로(朔太郎)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개업의였던 아버지 미쓰조와 어머니 게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주위와 잘 섞이지 못하고 책을 읽거나 악기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쿠타로가 문학에 눈을 뜬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와 있던 사촌 형 에이지에게서 단가를 배운 사쿠타로는, 요사노 아키코의 “형클어진 머리칼”을 읽은 후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키코와 남편 요사노 뎃칸이 주재했던 잡지 ‘명성’ 등에 단가를 투고했습니다.

한편, 낙제와 고등학교 입퇴학을 반복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기를 단념합니다. 1913년, 그때까지 지은 단가를 자필 시집 “하늘색 꽃”에 실었으나, 창작 활동을 단가에서 시로 옮겨서 기타하라 하쿠슈가 주재하는 잡지 ‘잠보아’에 시를 게재합니다. 시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 무렵의 작품은 시집 “순정 소곡집”(1925년, 신초샤) 전반부의 ‘애련시 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내가 연주하는 만돌린/찌릉찌릉 우는 소리가
슬프구나

(시집 “하늘색 꽃”에서)